

<p>(가)</p> <p>차디찬 아침 이슬 진준가*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</p> <p>소년아 네가 났다니 맑은 냇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</p> <p>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쪽마다 소리 석양(夕陽)을 새기고</p> <p>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(竹刀) 저 끝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</p> <p>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(噴水)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</p> <p>서풍(西風)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* 구름 뜨는 곳 희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</p> <p>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찌랴 - 이육사, 「소년에게」 -</p> <p>* 진준가 : 진주인가. * 한가 : 가장 끝 부분.</p>	<p>(나)</p> <p>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(裸木)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별받는 자세로 서서 아 별받은 몸으로, 별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,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(魂)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,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, 서서히, 문득,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, 마침내,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황지우, 「겨울-나무로부터 봄-나무에게」 -</p>
<p>(문제) (가)와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(2010학년도 9월 평가원 22번)</p> <p>① (가)의 ‘차디찬’과 (나)의 ‘영하 13도’는 모두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한다. ② (가)의 ‘냇’과 (나)의 ‘혼’은 모두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한다. ③ (가)의 ‘박꽃’은 순수함을, (나)의 ‘꽃’은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. ④ (가)의 ‘사랑했거늘’은 화해의 의미를, (나)의 ‘으스러지도록’은 대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. ⑤ (가)의 ‘쫓아다녀도’는 동경을, (나)의 ‘들이받으면서’는 거부를 의미한다.</p>	

가)

차디찬 아침 이슬
진준가* 빛나는 못가
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

소년아 네가 났다니
맑은 냇에 깃들여
박꽃처럼 자랐어라

큰강 목놓아 흘러
여울은 흰 돌쪽마다
소리 석양(夕陽)을 새기고

너는 준마 달리며
죽도(竹刀) 저 곧은 기운을
목숨같이 **사랑했거늘**

거리를 쫓아 다녀도
분수(噴水) 있는 풍경 속에
동상답게 **서 봐도 좋다**

서풍(西風) 뺨을 스치고
하늘 한가* 구름 뜨는 곳
회고 푸른 즙음을 노래하며

노래 가락은 흔들리고
별들 춤다 **미친들 어떠랴**
너조차 **미친들 어떠랴**

- 이육사, 「소년에게」 -

* 진준가 : 진주인가.

* 한가 : 가장 끝 부분.

● 4연 '사랑했거늘'에서 '~거늘'이라는 서술어미 뒤에는 특정한 문장 형식이 따라와요. 「국립국어원」의 국어사전에는 '~거늘'의 의미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.

“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맞서는 사실을 이어주는 연결어미. 흔히 뒤에는 의문문 형식이 온다.”

● 이와 같은 통사구조에 따라 '~거늘'과 호응하는 의문문 형식을 찾아보면 7연의 마지막 행 '미친들 어떠랴'와 연결되죠.

그래서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. 즉, 1연~4연까지는 소년이 자연 속에서 맑게 자란 **긍정적 상황**이 나와 있고, 반면에 5연~7연까지의 도시상황은 이에 맞서는 **부정적 상황**으로 이해되요.

● 그런데 5연의 마지막 행(='서봐도 좋다')을 의문문 형식으로 바꾸어 보면 4연의 '사랑했거늘'과 서로 호응되는 것 같기도 해요. 즉, '사랑했거늘, ~서봐도 좋지 않겠냐?'라고 의미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.

그러니까 4연의 “~거늘”은 5연과도 호응하고, 7연과도 호응한다는 말이죠. 5연에서는 “자연 속에서 순수함을 키우고 곧은 기운을 사랑했으니 부정적 상황(=거리)에서 동상답게 서봐도 좋지 않겠냐?”라는 의미죠. 이렇게 본다면 **거리(=도시)는 확실히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것** 같아요.

● '쫓아다녀도'의 주체는 소년이 아니라 도시의 보통 사람들 같아요. 사람들이 거리(=도시문명)를 쫓아 다녀도, “소년아, 너는 곧은 기운을 보여주어도 좋지 않겠냐”라고 화자가 소년에게 당부하고 있어요.

● 7연의 '미친들'은, “부정적 상황이 너에게조차 영향을 미친들 어떠랴”라고 읽을 수 있어요. '미친들'을 crazy로 읽으면 안 되죠. (^.^) 소년은 능히 그런 부정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.

(나)

나무는 자기 몸으로

나무이다

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

자기 온몸으로 햇빛고 영하 13도

영하 20도 지상에

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

무방비의 나목(裸木)으로 서서

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

아 벌받은 몸으로,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, 그러나

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

온 혼(魂)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

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

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

밀고 간다, 막 밀고 올라간다

온몸이 으스스하기도

으스스하기도 부르터지면서

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

천천히, 서서히, 문득, 푸른 잎이 되고

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

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

아아, 마침내, 끝끝내

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

꽃 피는 나무이다

- 황지우, 「겨울-나무로부터 봄-나무에로」 -

● '~이다'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에서 나무의 특성을 보여주네요.

● '~된다'라는 변화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통해 나무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.

(시의 제목도 '~로부터~에로'라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.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지 않아요.)

● 시련을 극복하고 나무는 새로운 존재로 '된다'고 하네요. (즉, 변화하는 것이죠.)

● '아아, 마침내, 끝끝내'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 탈바꿈하는 나무에 대한 경외심, 즉 '숭고미'를 보여주고 있어요.

● 변화된 나무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, 바로 '꽃 피는 나무'이죠.

(문제) (가)와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(2010학년도 9월 평가원 22번)

- ① (가)의 ‘차디찬’ 과 (나)의 ‘영하 13도’ 는 모두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한다.
- ② (가)의 ‘넋’ 과 (나)의 ‘혼’ 은 모두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한다.
- ③ (가)의 ‘박꽃’ 은 순수함을, (나)의 ‘꽃’ 은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.
- ④ (가)의 ‘사랑했거늘’ 은 화해의 의미를, (나)의 ‘으스러지도록’ 은 대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.
- ⑤ (가)의 ‘쫓아다녀도’ 는 동경을, (나)의 ‘들이받으면서’ 는 거부를 의미한다.

(정답 ③)

☞ 문제 해설

① ‘차디찬’은 ‘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’와 연결되어 탄생을 예고하지만, ‘영하 13도’는 제목에서 암시하듯 시련 속에서 존재의 변화를 의미해요. 그래서 (나)의 **존재 변화를 존재 탄생이라 하였기 때문에** (나) 부분이 틀렸네요.

② ‘넋’은 맑고 순수하며 **자연과 모순 없이 일체감을 이루고 있으므로 우아미를 나타내고,** ‘혼’은 **시련을 극복하고 대상세계에서 꽃을 피우는 긍정적 관계를 이루어냈으므로 숭고미를 나타냅니다.** (가)의 ‘넋’은 우아한데 숭고하다고 하였으므로 틀렸어요.

③ (가)의 ‘박꽃’은 ‘맑은 넋에 깃들여’ 자랐기 때문에 순수함을 갖고 있지요. (나)의 ‘꽃’은 ‘झ을 내밀고’, ‘푸른 잎’이 되었다가 ‘마침내’ 꽃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. 그래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어요. 정답은 쉽게 나오지만 다른 선택지 문항들이 어렵네요. ^.^

④ 화해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한 이 후에나 가능하지만 ‘사랑했거늘’에는 **대립, 갈등이 없으므로 화해 대신 순응, 조화의 의미를 줍니다.** 즉, 우아미의 미적 범주는 대상세계와 모순 대립하지 않지요. ‘으스러지도록’은 **영하에서 영상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대결의 의미를 지닙니다.** (가)부분이 틀렸고, (나) 부분은 맞아요.

⑤ ‘쫓아다녀도’의 행위 주체는 세상 사람이므로 도시를 동경한다고 볼 수 있어요. ‘들이받으면서’는 하늘로 뻗어나가는 생명력을 암시하므로 거부와 관련이 없지요. (가) 부분은 맞고, (나)부분이 틀렸어요.

[시읽기 방법 ① - 정리하기]

① 서술어와 통사구조를 통해서 시의 구조 파악하라

시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의 의미 덩어리를 나누어 보아야 해요. 행과 연 속에서 시의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시의 내용을 더 파고 들 수 있죠.

시의 의미 덩어리를 나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과 방법들이 몇 가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시에 쓰여진 서술어와 통사구조, 그리고 연결어를 통해서 의미 덩어리를 나누어 보았어요.

시에 쓰여진 서술어와 통사구조 그리고 연결어들은 시의 의미 덩어리를 나누고 시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요. 서정시는 보통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술어 부분만 주목하여도 시의 의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. 나아가 연결어를 통해 문맥적 흐름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해지죠.

그리고 동일한 문법 구조를 갖고 있는 문장 성분들을 통사구조가 같다고 해요. 같은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구요. **이러한 통사적 반복은 의미상으로 강조를 나타내기도 하고, 시의 리듬감을 조성하기도 하죠. 시의 리듬은 반복에 있는데 그러한 반복은 보통 통사적 반복으로 나타나거든요.** 그래서, 통사 구조가 같은 서술어나 어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표현상의 특징도 알 수 있고, 시의 구조도 알 수 있어요.